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News Letter

미국 첨단급 무기 증산과 방산업체와 의회의 반응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란에 대한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Operation Epic Fury)’을 명령하였으며, 현재 까지 작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첨단 전략 무기 재고 부족 문제가 새로운 전략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중부사령부(USCENTCOM)가 주도한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은 당초 단기간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되었으나, 이란의 비대칭적 대응이 예상보다 강하게 전개되고 미군의 첨단 전략무기 및 주요 장비 재고가 감소하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5월 27일 더 힐(The Hill)은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미국 방위산업체들과 패트리엇(PAC)-3 미사일 방어체계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 이른바 ‘첨단급 무기(Exquisite Class Weapon)’의 생산 확대에 합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방산업체들은 행정부가 이들 무기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2027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4일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NYT) 국제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 250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장비가 투입된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의 진행 상황과 첨단급 무기 재고 감소 현황을 보고받은 후, 헤그세스 장관과 함께 주요 방산업체들에 이란과의 군사작전 지속을 위해 첨단급 무기 생산 확대를 요청하였다고 보도하였다.

NYT는 대표적으로 록히드 마틴사가 PAC-3 요격미사일 생산량을 기존 600기에서 2,000기로,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요격미사일 생산량을 기존 96기에서 400기로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전쟁부가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 약 1조 5천억 달러에 관련 사업을 구체적인 예산 항목으로 반영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2월 28일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비대칭적 대응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역시 첨단급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증산 결정은 미군의 자체 소요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추가 수요까지 반영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로이터(Reuters)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지원무기목록(Prioritised Ukraine Requirement List: PURL)에 따른 첨단 무기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며, PAC-3 요격미사일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지난 5월 30일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he Times of Israel)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미국이 첨단급 무기를 추가 생산하여 군사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미국의 첨단급 무기 증산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첨단급 무기 증산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4일 NYT 국제판은 트럼프 행정부가 방산업체들과 추가 생산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 약 8,250억 달러에는 관련 예산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에도 반영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일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 카타르 및 아랍에미리트에 총 86억 달러 규모의 긴급 무기 수출(Emergency Arms Sales)을 승인한 가운데, 미국 방산업체들이 이들 국가에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첨단급 무기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첨단급 무기 증산 결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4일 NYT 국제판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증산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실제로 상원 군사 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상당수는 중국 및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급 무기를 이란과의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에 우선 투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첨단급 무기 증산 반대를 ‘무조건적인 반대(naysayer)’이자 ‘패배주의적 태도(defeatist)’라고 비판하며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대한 분노(Operation Grand Fury)’ 군사작전이 치밀하게 준비된 군사전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으나, 실제로는 충분한 전략적 검토보다는 대통령의 개인적 판단(personal instinct)에 의해 추

진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논란은 미국이 동시다발적 안보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첨단 무기 생산능력과 전략적 비축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 이미지 설명 :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의사당

* 이미지 출처 : www.wikipedia.org

* 내용 출처: NYT, May 4, 2026; The Hill, May 27, 2026; The Times of Israel, May 30, 2026.

*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